

교환학생 보고서

이름	한 글	정재웅	소속(학부/과)	기계공학과
파견 학기	2019-1		파견 국가	독일
파견 대학	하일브른응용과학대학			

❖ 경험보고서는 이후 파견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소중한 자료가 됩니다. 성실히 작성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교환학생에 관심 갖게 된 계기 및 지원 동기

해외에서 거주하고 새로운 문화를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지원했습니다.

■ 출국 전 준비 사항과 주의할 점(상대교 서류준비, 비자발급 절차, 항공권 구입, 수강신청 및 기숙사 신청 내용 포함)

- 항공권구입

항공권 구입에 대해서는 특별한 방법은 없고 개인이 선호하는 항공사나 생각하시는 금액대에 맞추어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KISES항공을 이용해 예약했고 ISIC국제학생증 소지자 할인을 통해 일반 금액에 약 30% 저렴한 금액으로 예약했습니다.

- 비자발급

비자발급은 현지 도착 후에 발급받게 되며 오리엔테이션 기간에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선 몇 가지 서류와 독일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돈을 가지고 있다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오리엔테이션 기간 동안 하일브른대학의 도우미 친구들과 함께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게 됩니다. 그 계좌에 시청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한국에서 송금하시면 비자발급에 필요한 증명은 완료됩니다. 다음으로 필요한 서류들은 출국 이전에 하일브른대학에서 보내주는 메일을 잘 확인하셔서 필요서류들을 준비해 가신다면 아무 문제 없이 비자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수강신청

독일은 수강신청이 아닌 시험신청이 있습니다. 개설되어있는 수업이라면 어떤 수업이든 들을 수 있고 만약 그 수업의 학점을 인정받고 싶다면 학기 중반 정도에 있는 시험신청 기간에 수업의 시험을 신청하면 됩니다. 시험신청을 한 과목들은 시험기간에 시험을 치르고 성적과 학점을 인정받게 됩니다.

■ 파견대학 소개(크기, 지리적 위치, 기후, 주변 환경 내용 포함)

학교의 규모는 금오공대와 비슷하며 하일브른 내에는 Sontheim과 Buildings 두 개의 캠퍼스가 있습니다. 두 개의 캠퍼스는 버스로 약 1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Sontheim에는 공학계열의 전공이 있고 Buildings에는 비즈니스학과들이 있어서 전공선택 및 수업선택 따라 주로 수업을 듣는 캠퍼스가 결정됩니다.

3월부터 8월까지 하일브른의 날씨는 3월을 제외하고 대체적으로 좋았습니다. 3월은 대부분 흐린날이 많고 비도 자주 내립니다. 기온은 한국과 대체로 비슷하고 여름에는 한국보다 햇빛은 강하지만 습하지 않

아서 한국보단 훨씬 시원하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 수업 및 학사 관련 사항(수강과목 포함)

-Logistic system planning with simulation

자동화공장의 물류 시스템에 사용되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Automod를 배우는 수업입니다. 수업은 한 학기동안 Automod 프로그램 사용법을 익히고 시험은 과제물과 과제물을 설명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는 형식입니다. 물류 시스템에 관심있는 학생이라면 추천하는 수업입니다.

-Microcontroller

Atmel Studio 7.0을 사용하여 프로그래밍을 배우는 수업입니다. 수업은 일반 이론수업과 Atmel Studio 프로그램을 직접 사용하여 실습하는 lab수업이 있으며, lab수업은 선택사항입니다. 일반 이론수업은 학기 말에 시험을 치르게 되며, lab 수업은 과제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업의 난이도는 높지 않기 때문에 프로그래밍을 경험하고 싶다면 추천하는 수업입니다.

-german as foreign language(A1.1)

오리엔테이션 기간에 독일어 테스트를 받게되며 독일어를 할 줄 모른다면 테스트 없이 A1.1 반으로 배정받게 됩니다. 2019년도 여름학기 기준으로 A1.1 반은 3반이 개설되었습니다. 반마다 교수님이 달라서 수업진행 방식이 다르고 저는 Bauer 교수님 수업을 들었는데 추천합니다. 독일어 수업은 다른 수업과 다르게 출석 점수가 중요하며 학기 중간과 학기 말에 시험이 2번 있습니다.

-Seminar : European Transport and Logistics Market

유럽의 물류와 대중교통에 관해 배우는 수업입니다. 수업의 구성은 세미나로 구성되어 있고 유럽의 대중교통 회사나 물류회사에서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쾰른 공항 또는 공항 내의 물류회사 견학이 수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수업은 독일의 다른 지역에서 네덜란드 등에 있는 학교 학생들과 같이 수업을 듣게됩니다. 시험은 프레젠테이션으로 진행되며 우리나라와 수업진행 방식에서의 차이를 가장 크게 느낀 수업입니다. 5일간 수업이 진행되며 수업을 참가하는데 약 40유로 정도의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이 수업은 Business 계열 학생들만 들을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Strategic Network Design

이 수업은 유통에서의 고객의 공급망 모델링, 최적화, 시뮬레이션 작업을 지원하는 Supply Chain Guru 프로그램의 사용법을 배우는 수업입니다. 시험은 조별 모델링과 프레젠테이션 발표로 진행되고 유통과 물류에 관심있는 학생이라면 추천하는 수업입니다.

■ 숙소 및 거주 관련 사항(기숙사비, 생활비 내용 포함)

저는 막스플랑크27에 거주했습니다. 막스플랑크 27은 2인실과 1인실로 구성된 한국 기숙사와 비슷한 건물입니다. 2인실은 주방과 화장실, 방2개로 구성되서 룸메이트와는 개별된 공간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27건물에는 세탁기가 없어서 뒤에 있는 31건물의 세탁실을 이용하게 됩니다. sontheim 캠퍼스와는 도보로 약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기숙사비는 월 297유로이고 보증금 450유로가 있습니다.

■ 파견대학 국제팀 프로그램/서비스 및 교환학생 활동 소개

파견대학 국제팀 프로그램 및 서비스는 독일에서 생활하고 학교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오리엔테이션 기간동안 국제팀 선생님들과 도우미 학생들은 비자, 독일계좌, 기숙사, 학교소개 등 모든 것에 관해 빠짐없이 해결해 줍니다. 특히 출국하기 전 제일 막막한 비자문제는 국제팀에서 자세하게 설명해주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오리엔테이션은 위와 같은 것들과 학교 주변 도시

에 있는 박물관 견학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외의 수강신청, 학교생활 등은 본인의 배정된 학과 선생님들과 버디들의 도움을 받게됩니다.

■ 학교 부대시설 및 추천 하고 싶은 동아리

학교에는 거의 모든 운동 동아리가 개설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클라이밍 동아리를 나갔었고 클라이밍 센터는 학교에서 약간 떨어져 있습니다. 자전거나 버스를 이용해 이동해야 합니다. 클라이밍 센터는 계속 오픈되어 있지만 월요일에 센터 신발을 대여하지 않고 하일브론 학생용 신발을 무료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 문화적 차이 및 향후 파견 학생들을 위한 TIP

주의해야할 문화적 차이는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생활하시다 보면 자연스레 문화에 적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출국 전에 영어회화 공부를 꾸준히 하시고 학교생활을 하다 보면 우연찮은 기회로 잘 맞는 친구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느낀 점, 배운 점

한국에서의 생활방식, 수업방식, 사람들의 생각 모든 것이 상상했던 것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한국에서만 생활하고, 여행으로 독일을 갔었다면 느끼지 못할 많은 것을 경험했던 6개월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문화와 많은 사람을 만나고 넓은 세계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인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한 경험을 해서 너무 좋았고 교환학생을 선택한 결정이 정말 후회되지 않는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기타(사진, 건의사항, 등)